

전남 바이애슬론 적수가 없다...동계체전 9개 메달 획득



김상욱 감독

최강팀 이끈 김상욱 감독 “임기 마지막 좋은 성과에 기뻐 전남 선수들 더욱 발전할 것”

최근 막을 내린 제105회 동계체전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은 전남 바이애슬론 팀의 활약이다. 선수단은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로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최강팀’임을 증명했다. 이들의 빛나는 활약 뒤에는 전남 바이애슬론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김상욱 감독의 열정이 있었다.

김 감독이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지 않은 경기는 없었다. 매 순간 과정에 최선을 다했기에 우수한 성적은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였다.

그는 “선수들도 지도자들도 늘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하지, 결과를 중요시하는 팀이 아니다. 항상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도록 훈련을 해왔었고 나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그 목표를 잡아서 여기까지 차곡차곡 달려오다 보니 항상 결과가 좋았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이 결합한 종목인 바이애슬론은 자연과 맞서는 생존게임에서 비롯된 만큼 날씨 변수가 많다.

김 감독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눈과 바람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맥박이 170 이상 뛰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물에 명중시켜야 하는 굉장한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종목이다. 모든 선수가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다”며 강한 바이애슬론 정신력을 언급했다.



전남 바이애슬론 선수단. 왼쪽부터 티모페이 랍신, 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 김철영, 아래 열혜진, 에카 테리나 압바쿠모바, 함해영.

팀워크 역시 최강이다. 지도자의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강하게 이끌 때도 있지만 선수들 역시 내면의 강인함으로 잘 믿고 따라와 주고 있다.

그는 “대회를 앞두고는 나와 코칭스태프 전체가 긴장한다.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 부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선수와 지도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운동할 때는 더 거칠고 좀 더 욕심내는 선수를 바란다. 우리 선수들이 ‘외유내강’이라는 부분에서 잘 맞는 것 같다. 은퇴한 선수들도 체전 기간이 되면 많이 도와주러 온다. 그런 전통을 이어오기 때문에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도자가 열심히 해야 서로 신뢰가 쌓이고 본인의 몸 상태에 있어서 지도자를 믿고 갈 수 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면에서 전남은 최고의 팀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서로의 믿음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다.

코치진은 장비 하나하나에도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기 전 코치진은 스키에 왁싱 작업을 하고 직접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완벽한 장비 상태를 만들어 낸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팀으로서 각 선수에 맞는 장

비를 맞춰주기 위해 매년 전담체육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겨울이 오기까지 장비를 보관하고 관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힘을 많이 쏟는다. 최신 장비가 나왔을 때도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습득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러다 보니 장비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에 못지않게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2월 임기를 끝내고 감독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는 앞으로 더 발전됐으면 하는 점으로 바이애슬론의 저변 확대와 코칭스태프의 근로 환경을 꼽았다.

그는 “아직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코칭스태프의 노력에 비해 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연맹이나 관련기관에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후배 선수들도 그걸 보고 목표를 잡고 갈 것이고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굉장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코칭스태프하고 선수들 보면 항상 고맙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1년 내내 팀 훈련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칭 스태프들과 선수들 두터운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나는 우리 팀을 믿는다. 항상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고 팀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보였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PGA 진출 10년째 각오 다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고진영이 올해 목표로 “부상 없이, 행복하게”를 꼽았다.

고진영은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28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LPGA 투어에 진출한 지 10년째 되는 해”라면서 “부상 없이, 행복하게 골프를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은 부상이 많았다”면서 “최근 2년 동안은 많이 나아졌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작년에도 부상 탓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고진영은 “골프니까 작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 수 있다. 골프는 정말 힘들다. 인내심과 침착함, 그리고 즐기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년과 작년 에 이 대회에서 우승해 이번이 3

연패를 바라보는 고진영은 3연패의 부담은 내려놔다고 털어놨다.

“HSBC에서 두 번이나 우승해서 항상 행복하다”는 고진영은 “두 번 모두 운이 좋아 우승했기에 큰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진영은 “그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모두가 우승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나 자신 뿐”이라는 말로 경기에 나서는 각오를 전했다.

연습 라운드를 치른 고진영은 “핀 위치가 조금 바뀌었고 벙커가 새로 생겨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페어웨이에 나무가 많고 그린의 정말 빨라서 쉽지 않은 코스지만, 페어웨이를 잘 치키고 그린에 볼을 자주 올리면 버디가 많이 나온다”고 코스를 평가했다.

이날 회견에서 복싱 선수 출신 부친한테 어떤 조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고진영은 “가끔 줄넘기를 더 하라고 하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 LIV로 12년 만에 필드 복귀

코스연습장서 연습 영상 공개

여전히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앤서니 김(미국·사진)의 필드 복귀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다.

골프채널은 28일 앤서니 김이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경제도시의 로열 그린 골프&컨트리클럽의 연습장에서 연습 공을 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로열 그린 골프&컨트리클럽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사흘 동안 LIV 골프 제다(총상금 2500만 달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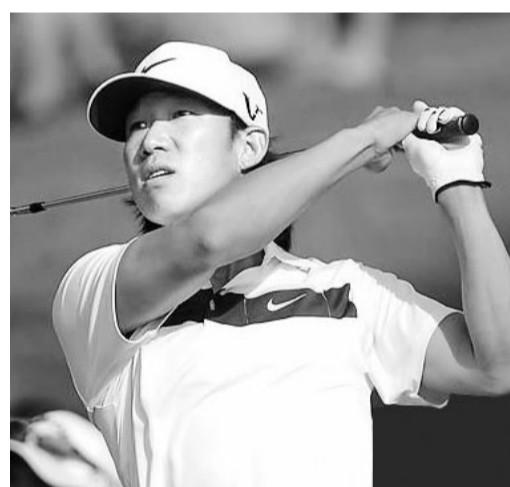
앤서니 김이 포착된 연습장은 대회 공식 레인지였다.

이 영상에서 앤서니 김이 쓴 모자에는 LIV 골프 로고가 달려 있었다.

그는 골프 웨어에 아닌 무릎을 살짝 덮는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채 골프채를 힘차게 휘둘렀다. 드라이버 스윙은 예전과 다름없이 빠르고 힘이 넘쳤는데, 전처럼 그립을 짧게 내려 쥔 모습은 아니었다.

LIV 골프는 LIV 골프 제다에 13개 팀 52명과 개인 자격 와일드카드 2명 등 54명이 출전한다고 밝혔을 뿐, 앤서니 김의 출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LIV 골프 수장 그렉 노먼(호주)은 27일 소셜미디어에 “이 선수의 재탄생을 알릴 기회를 얻



어 영광이다. 골프는 당신을 기다려왔다”고 앤서니 김의 복귀를 예고했고, 이날 로열 그린 골프&컨트리클럽에서 연습하는 모습까지 드러나 앤서니 김의 출전은 확실해졌다.

한때 타이거 우즈(미국)의 대항마로 꼽혔던 앤서니 김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5년이라는 짧은 기간 활약한 뒤 필드를 떠났다.

이탈리아에서 다친 그는 골프 선수를 그만두는 조건으로 100여만 원 넘는 보형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번 필드 복귀는 막대한 자본력을 댄내는 LIV 골프가 앤서니 김의 보형료를 대신 반납하는 등 거액을 투자한 결실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소통간담회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7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종목단체장과 2024 소통간담회를 열고 광주 체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

전갑수 시체육회장과 나훈 야구소프트볼협회장, 장계상 바둑협회장 등 종목별 대표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우수선수 및 청년체육인재 육성 규정 정비를 통한 지원 효율성 제고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



2024년 회원종목단체장 소통간담회. 일시: 2024. 2. 27.(화) 10:00. 장소: 중회의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묘, [20주년특가]이프 온리
- 2관 파묘
- 3관 둘: 파트2, 윙가
- 4관 둘: 파트2
- 5관 파묘
- 6관 파묘
- 9관 둘: 파트2, 소풍
- 7관 싸이퍼들 윙가, 건국전쟁
- 8관 싸이퍼들 [20주년특가]이프 온리, 시민덕희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쿠리
 일시: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윤우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